

인천정유, Sinochem-Citi 맞대결

인천지법, 6월9일 매각 입찰공고 ... 7월12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2005년 1월 타결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인천정유 매각작업이 5개월만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인천정유 인수를 눈앞에 두고 최대 채권단인 Citigroup측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된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Sinochem과 자체 인수의사를 밝혔던 Citigroup의 맞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정유를 법정관리중인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6월9일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고 6월13일 발표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인천정유는 6월20일부터 7월12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인천지법은 8월18일 인수 희망가격과 조건 등이 명시된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가격과 경영능력 등을 따져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어 본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께 인천정유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3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인천정유는 2004년 9월 중국 Sinochem과 6351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채권단인 씨티그룹 계열 자산유동화회사인 블루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낮은 인수가격을 이유로 잇따라 반대의사를 밝혀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체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인천지법은 이후 인천정유 조기 매각을 위해 블루투로부터 먼저 인수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한 뒤 다른 인수 희망기관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씨티그룹에 곧바로 매각할 방침이었다.

또 씨티그룹 보다 높은 인수가격을 제출한 인수 희망기관이 있으면 최고가를 적어낸 기관과 씨티그룹과의 결선 입찰을 진행키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매각작업을 진행하던 담당자들이 교체된 뒤 새로 구성된 파산부는 기존 방침이 씨티그룹에 유리한 기회를 준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원점으로 돌려 재입찰에 들어갔다.

<화학저널 2005/06/14>